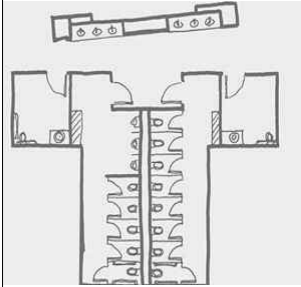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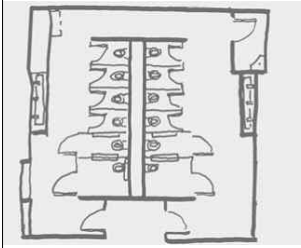


‘모두를 위한 화장실’ 제안서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적 인식 완화에 관련한 GCP 프로젝트-

안녕하세요? 저희는 경희대학교 강의 ‘세계와 시민’에서 진행하는 GCP(Global Citizen Project)에서 성소수자 차별 문제를 주제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 학생들입니다. 해당 문제 해결을 위해 ‘모두를 위한 화장실’ 설립 제안서를 작성 중에 있으며, 추후 서울특별시 사이트의 ‘시민 제안하기’ 기능을 통해 제안을 해볼 예정입니다. 도움 주시는 것에 감사드리며, 아래 내용은 제안서 본문입니다.

	내 용	
제안 배경	전 세계적으로 트랜스젠더가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이들은 여전히 차별의 시선을 받고 있다. 이러한 불편함은 정서적 상처를 넘어서 생계 문제로 이어지기도 한다. 그 중 일상생활과 가장 결부되어 있으면서도 불편한 문제 중 하나가 바로 화장실이다. 2015년 발표한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 실태조사 결과 발표 토론회> 자료집에 따르면, 트랜스젠더 퀴어가 화장실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차별을 겪는 비율은 절반가량이며, 48.1%는 공중 화장실 이용 자체를 포기했다고 답했다. 이처럼 화장실의 구분으로 인한 차별은 비단 트랜스젠더 등 성소수자만 받는 것이 아니다. 장애인, 어린 아이를 동반한 부모님 등 ‘성별’이라는 경계로 인해 피해 받는 소수자들은 사회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를 국가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는 바이며, 모두를 수용할 수 있는 ‘모두를 위한 화장실’의 확산을 제안한다.	
해외 사례 및 현황	✓ 미국에서는 성중립 화장실이 2010년 처음 도입되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롱비치 캘리포니아 주립대 화장실에서 한 트랜스젠더 학생이 다른 학생들에게 폭행을 당한 뒤 성중립화장실 도입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다. 2015년에는 오바마 대통령의 지시로 백악관 내 성중립화장실을 설치했다. 캘리포니아주는 지난해부터 모든 공공건물에 성중립화장실 설치를 의무화했다. ✓ 일본은 2020년 도쿄올림픽에 대비해 공공시설 등에 성중립 화장실 설치를 준비하였다. 특히 시부야 같은 경우 성적 소수자를 배려한 화장실 남녀 공용화 문제 뿐 아니라 휠체어 이용자 및 인공항문·방광 착용자, 영유아 동반자 등 이용객의 특성에 따라 화장실을 선택할 수 있도록 다기능 화장실 설비를 개별실로 분산하는 방법 등을 떠올리며 베리어 프리(barrier free)한 화장실을 선도하고자 하였다.	
예시 디자인	*해당 설계도는 건축기업 ‘겐슬러’의 커뮤니티에 올라온 그림과 설명을 사용하였으며, 이 외에도 다양한 형태가 있으나 참고용으로 제시함을 밝힙니다.	
	• 단일 사용자 단일 사용자 솔루션은 단칸 안에 세면대, 변기가 모두 있는 화장실이다. 모든 사용자에게 프라이버시를 제공하며 소규모 작업 환경이나 트래픽이 적은 지역에 가장 적합하다. 표지판은 성별을 포함해야하며	

	(현지 규정 요구 사항 보류 중), "있음"과 "비었음"을 표시하는 시각적 잠금 장치는 추가 프라이버시를 제공한다. 단점 : 구현하는 데 많은 비용이 필요하다. • 하이브리드 솔루션 하이브리드 솔루션은 모든 사용자를 위한 개인 공간과 공동 공간을 결합하며 작업 환경, 공공장소 및 트래픽이 많은 지역에 가장 적합하다. 각 칸에는 변기가 하나씩 들어있고 장애인용 화장실이 양쪽에 하나씩 있는 형태이다. 성 소수자 개인이 자신의 성 정체성과 일치하는 공간을 사용할 수 있으며 장애인 화장실이 따로 있음으로써 추가적인 공간이 필요한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한다. 공동 싱크대는 공동 배관 및 비용 절감을 허용하면서 포괄적인 정책을 보완할 수 있다. • 다중 스톨 솔루션 다중 스톨 솔루션은 모든 사용자에게 프라이버시를 제공하며, 트래픽이 많고 보안이 잘되는 공공 공간에 가장 적합하다. 간판 및 정책은 명확하게 전달되어야 하며 (다국어가 바람직 함) 코드 요구 사항은 현지 설계자가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 천장부터 바닥까지 내려오는 칸막이에는 추가 조명, 환기 또는 구조적 지원이 필요할 수도 있으며, 보안 고려 사항도 분석해야 한다.	 
제안 형태	현재 사람들의 인식과 더불어 비용적인 측면을 고려해 보았을 때 가장 합리적인 형태는 장애인 화장실에 • 대변기 • 소변기 • 아동용 변기 • 장애인용 손잡이 • 기울어진 거울 • 기저귀 교환대 • 이 외 노약자 및 성소수자에게 필요한 장치 등을 설치하는 것이다. 여자 화장실과 남자 화장실은 따로 존재하고, 장애인 화장실만 해당 방향으로 개조하는 방법이다. 또한 기존 장애인 화장실 표시인 휠체어 기호 대신 위에 첨부한 사진처럼 남녀노약자 모두를 수용할 수 있다는 뜻을 내포하는 기호로 화장실을 표시하여 장애인만 사용해야 하는 공간이 아님을 표현한다.	

기대 효과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없애자는 의도에서 제안하는 화장실이니만큼 외적인 성별과 자신의 성별이 일치하지 않아 고충을 겪는 성소수자들의 고민을 조금은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 화장실’이라고 만들어진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들의 실제 이용에 불편함을 주는 화장실들에 있어서도 많은 개선이 이뤄질 것이라 기대한다. 더 다양하고 많은 사람들이 쓰고 빈번히 사용되는 공간인 만큼 불편함이 발견되면 더욱 빨리 공론화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새로운 유입자인 어린 자녀를 동반한 부모님, 성소수자 뿐만 아니라 기존 이용자였던 장애인들에게도 이로운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한다.
-------	---